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비율에 관한 분석

구 본영

I. 序 論

외국인 투자기업은,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외국인이 100%를 전액 투자한 외국인 소유 완全所有(wholly-owned) 기업, 외국인과 내국인이 각각 50%씩 투자한 共同所有(co-owned) 기업, 그리고 외국인이 50%미만을 투자한 외국인 小数所有(minority-owned) 기업 등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先導(initiative)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資本導入國의 投資比率制限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외국投資家の 立場에서 보면, 所有持分이 많아지면, 投資之企業의 支配權은 커지나, 支配權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 收益性 높은 事業을 認知받지 못할 가능성이 投資资本에 대한 風險負擔이 커져게 된다는 短點이 있다. 따라서 理論의 立場에서 보면, 支配權과 負擔의 限度費用이 커지면, 事業의 適正投資比率이 결정된다고 본 수 있다. 반면, 資本導入國의 立場에서 보면, 風險負擔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고, 技術의 移轉이 가장 많고, 支配權의 상실이 가장 적은 形態의 外國人投資를 원할 것이다. 外國人投資의 最終形態는 이와 같이 支配權, 風險負擔, 技術移轉이라는 세 변數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

---

筆者：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1) 業, 外國人과 内國人이 각각 50%씩 投資한 共同所有(co-owned) 기업, 그리고 外國人이 50%미만을 投資한 外國人 小数所有(minority-owned) 기업 등이다.

이와 같은 所有形態의 차이는 外國人 投資家의 先導(initiative)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資本導入國의 投資比率制限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外國投資家の 立場에서 보면, 所有持分이 많아지면, 風險負擔이 커져게 된다는 短點이 있다. 따라서 理論의 立場에서 보면, 支配權과 風險負担의 限度費用이 커지면, 適正投資比率이 결정된다고 본 수 있다. 반면, 資本導入國의 立場에서 보면, 風險負擔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고, 技術의 移轉이 가장 많고, 支配權의 상실이 가장 적은 形態의 外國人投資를 원할 것이다. 外國人投資의 最終形態는 이와 같이 支配權, 風險負担, 技術移轉이라는 세 变數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의 측면과 전기에 외국인의 모형화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의 모형화는, 일본인의 바람직하고 지향하는 공정한 관계의 형성과 상호간의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음에 그 편익을 한부에 다가한 수:mm으로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1979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에 저장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대표적인 투자 비율의 일반적인 이동, 국별·종별 및 규모별 이동을 정리하여 본 것이다. 일부 결과는 아직 불완전하지만 외국인 투자 비율의 관점에서 목표체계의 차이에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에 한국의 경우 아직 없었기 때문에 차후 투자 비율에 관한 연구가 정책 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실었다.

## II. 외국인 투자비율의 일반적인 이동

우리나라의는 1979년 1월 1일 현재 856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이 중 114개의 기업은 타국 및 황토의 영업을自由地域내에

---

2) Wright and Russell(1975)은 ' Technique Licensing (licensing agreement), '에 의해 기업의 협약을 통한 투자 및 자회사의 투자, 그리고 ' Equity joint venture '를 포함하는 크기의 대형 외국인 협력 투자 기업의 모형화로 보고하기 위하여 '상대적'적 요인을 사용하였다.

---

### 表 1.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비율 분포

<table>
<thead>
<tr>
<th>투자 비율 (%)</th>
<th>최초</th>
<th>구분비</th>
<th>현상</th>
<th>구분비</th>
</tr>
</thead>
<tbody>
<tr>
<td>1~10</td>
<td>5</td>
<td>(0.7)</td>
<td>13</td>
<td>(1.8)</td>
</tr>
<tr>
<td>11~20</td>
<td>19</td>
<td>(2.6)</td>
<td>28</td>
<td>(3.8)</td>
</tr>
<tr>
<td>21~30</td>
<td>28</td>
<td>(3.8)</td>
<td>59</td>
<td>(8.0)</td>
</tr>
<tr>
<td>31~40</td>
<td>98</td>
<td>(13.2)</td>
<td>114</td>
<td>(15.4)</td>
</tr>
<tr>
<td>41~50</td>
<td>450</td>
<td>(60.6)</td>
<td>409</td>
<td>(55.1)</td>
</tr>
<tr>
<td>51~60</td>
<td>24</td>
<td>(3.2)</td>
<td>22</td>
<td>(3.0)</td>
</tr>
<tr>
<td>61~70</td>
<td>26</td>
<td>(3.5)</td>
<td>23</td>
<td>(3.1)</td>
</tr>
<tr>
<td>71~80</td>
<td>23</td>
<td>(3.5)</td>
<td>17</td>
<td>(2.3)</td>
</tr>
<tr>
<td>81~90</td>
<td>9</td>
<td>(1.2)</td>
<td>7</td>
<td>(0.9)</td>
</tr>
<tr>
<td>91~100</td>
<td>60</td>
<td>(8.1)</td>
<td>50</td>
<td>(6.7)</td>
</tr>
</tbody>
</table>

(평균 투자 비율) (52.2) (48.8) (20.0)
(표준편차) (18.2) (18.6)

---

### 表 2. 외국인 투자 기업의 모형별 분포

<table>
<thead>
<tr>
<th>모형 (1)</th>
<th>최초</th>
<th>구분비</th>
<th>현상</th>
<th>구분비</th>
</tr>
</thead>
<tbody>
<tr>
<td>소수 (1~49)</td>
<td>362</td>
<td>(48.8)</td>
<td>429</td>
<td>(57.8)</td>
</tr>
<tr>
<td>동일 (50)</td>
<td>238</td>
<td>(32.1)</td>
<td>194</td>
<td>(26.1)</td>
</tr>
<tr>
<td>주요 (51~99)</td>
<td>87</td>
<td>(11.7)</td>
<td>75</td>
<td>(10.1)</td>
</tr>
<tr>
<td>완전 (100)</td>
<td>55</td>
<td>(7.4)</td>
<td>44</td>
<td>(5.9)</td>
</tr>
</tbody>
</table>

(평균 투자 비율) 742 (100.0) 742 (100.0)

---

주: 1) 모든 수치는 외국인 투자 비율을 나타내며, 이후 부합하는 기계의 모든 수치는 각 모형별 투자 비율의 모형별 분포를 각 모형별로 분포한 수치이다.

---

資料: 經濟企劃院
에서 100%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표는 또한 외국
인투자비중이 41~50%인 경우와 91~100%인
경우가 가장 절대가 높음을 나타내 주고 있
다.

이제 투자비중의 분포를 보고 본래의 형태에 따라
다시 구분하여 보면 〈표 2〉의 같다. 동표를
살펴보면 외국인을 소수로 일부 기업의 비중이 48.8
~57.8%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비중은 외국
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後述하였지만)
중요한 정책의 의미를 갖고 있다. 다음으
로 서울이 높은 산업는 외국인에 비용
득한 것이 정책의 측면으로 표
인한다. 이에 따라 현행 투자비중이 기준으로 보면,
내국인이 적어도 50%의 차를 소수로 하고 있
는 외국인 기업이 무려 84%에 달하고 있다.

이제 모든 형태의 변화를年度별로 살펴보면
〈표 3〉의 같다. 우선 외국인 완전소수기업이
나 외국인수소수기업의 비중이 1968년 이래
계속 축소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외국
인・내국인 공동소수기업의 비중은 1968년 이
래 1975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왔고 최근에는
32~3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외국인 규모
소수기업의 비중은 1972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이
었으나 1973년 크게 증가하였고 그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1968년 이래 투자
업계의 경우가 외국인・내국인 공동소수기업
이 크게 증가하여 왔 것으로, 그리고 1973년
부터는 외국인 소수기업이 상대적으로 증
가하여 옵로운 것으로 보 수 있다. 이에 따라 외
국인 평균투자비중 또한 1968년 59.7%를
최고점으로 계속 축소하여 1978년에는 52.2%에
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투자정책의 외국인 투자비중에
관한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
고 있다. 즉, 1962~67년간 정부의 투자비중
에 관한 기본 정책은 외자유입에 관한 바

〈표 3〉 所有形態의年度別 累積分布

<table>
<thead>
<tr>
<th>年度 (年)</th>
<th>小數</th>
<th>共同</th>
<th>多數</th>
<th>完全</th>
<th>計</th>
<th>均</th>
<th>企業數</th>
</tr>
</thead>
<tbody>
<tr>
<td>1962~66</td>
<td>41.2</td>
<td>17.6</td>
<td>23.5</td>
<td>17.6</td>
<td>100.0</td>
<td>53.9</td>
<td>(17)</td>
</tr>
<tr>
<td>1967</td>
<td>41.9</td>
<td>19.4</td>
<td>19.4</td>
<td>19.4</td>
<td>100.0</td>
<td>57.9</td>
<td>(31)</td>
</tr>
<tr>
<td>1968</td>
<td>40.7</td>
<td>14.8</td>
<td>24.1</td>
<td>20.4</td>
<td>100.0</td>
<td>59.7</td>
<td>(54)</td>
</tr>
<tr>
<td>1969</td>
<td>39.5</td>
<td>23.5</td>
<td>18.5</td>
<td>18.5</td>
<td>100.0</td>
<td>58.7</td>
<td>(81)</td>
</tr>
<tr>
<td>1970</td>
<td>41.5</td>
<td>24.6</td>
<td>16.9</td>
<td>16.9</td>
<td>100.0</td>
<td>57.3</td>
<td>(142)</td>
</tr>
<tr>
<td>1971</td>
<td>40.8</td>
<td>28.6</td>
<td>16.3</td>
<td>14.3</td>
<td>100.0</td>
<td>56.6</td>
<td>(196)</td>
</tr>
<tr>
<td>1972</td>
<td>39.0</td>
<td>30.3</td>
<td>16.9</td>
<td>13.8</td>
<td>100.0</td>
<td>57.0</td>
<td>(280)</td>
</tr>
<tr>
<td>1973</td>
<td>45.1</td>
<td>31.8</td>
<td>13.7</td>
<td>9.5</td>
<td>100.0</td>
<td>54.1</td>
<td>(497)</td>
</tr>
<tr>
<td>1974</td>
<td>45.9</td>
<td>33.0</td>
<td>12.4</td>
<td>8.7</td>
<td>100.0</td>
<td>53.4</td>
<td>(588)</td>
</tr>
<tr>
<td>1975</td>
<td>45.9</td>
<td>33.0</td>
<td>12.4</td>
<td>8.4</td>
<td>100.0</td>
<td>53.1</td>
<td>(619)</td>
</tr>
<tr>
<td>1976</td>
<td>46.7</td>
<td>32.5</td>
<td>12.4</td>
<td>8.4</td>
<td>100.0</td>
<td>52.2</td>
<td>(655)</td>
</tr>
<tr>
<td>1977</td>
<td>47.5</td>
<td>32.4</td>
<td>12.2</td>
<td>7.9</td>
<td>100.0</td>
<td>52.6</td>
<td>(695)</td>
</tr>
<tr>
<td>1978</td>
<td>48.8</td>
<td>32.1</td>
<td>11.7</td>
<td>7.4</td>
<td>100.0</td>
<td>52.2</td>
<td>(742)</td>
</tr>
</tbody>
</table>

주: 前列投資比率 시기 초 기조 비율 나타내 주고 있음.
資料：外資企劃院.
本方針(1961. 12. 15.)에 따라 국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投資比率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외국인多數의 所有企業의 完全 所有企業의 비중은 오히려 增加하였다. 1968~72년에도 投資比率에 관한 제한은 없었으나 日本과의 國交正常化에 따라 日本으로부터의 合作投資企業이 크게 增加하게 되었다. 期間中 合作投資企業 특히 완全 所有企業의 増加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日・美企業의 投資行動差異에 관한)는 다음 就에서 言及 論定임).

그러나 1973년 2월 「外國人 投資比率 調整에 관한 原則」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外國人投資比率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0% 以下とした 原則으로 하고 있다. 1973년 以後의 外國人 小數 所有企業 增加와 外國人 多數 所有企業과 完全所有企業의 감소는 이러한 政府政策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外國人 완全所有企業의 減少와 合作投資企業의 增加는 우리나라에서 국한된 힘상이 아니었고 世界的 一般的 趨勢이었다. 즉, 1960年代 중후반부터 多國籍企業의 청포 혹은 영향력의 지속적 增大에 관한 外國가 여러 學者, 政治家들에 의하여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UN, OECD 등 國際機構에는 多國籍企業의 行動規範을 규정하기 위한 委員會들이 세 움이 建立되었다).

 많은 開發途上國들은 또한 외國人投資上 自國의 經濟開発計画의 목적과 부합되는 활동만을 하기를 원하게 되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國人의 完全所有企業을 不許하는 政策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開發途上國의 政策은 西欧와 日本 多國籍企業의 進出에 따라 投資先 選擇의 여지가 넓어졌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外國投資家들의 입장에서도 開發途上國의 이러한 要求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國有化의 가능성을 제외하고 投資本의 危険부담을 減少시키기 위하여도 合作投資을 公正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4). 따라서 1960年代 中 후반부터 외國인 完全所有企業보다는 合作投資企業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상대적으로 크게 增加하게 되었다. 그러나 國別, 産業別 投資比率의 분포는 아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다음 節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검토해 볼 論定이다.

Ⅲ. 國別 投資比率 推移

1979년 1월 1일 現在 우리나라에 进出하고 있는 外國人投資企業의 現況을 國別으로 나타내 살펴보면 (表 4)와 같다. 併數基準으로 보나, 投資額基準으로 보나, 日本으로부터의 外國人投資가 가장 많은 편이고 다음이 美国, 西欧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日本으로부터의 投資中에는 在日僑僑의 投資가 특히 金額基準으로 본 때 상당히 많았다.

併數基準 構成比率 投資額基準 構成比率 미 교하여 平均投資規模을 살펴보면 西欧와 其他
地域으로부터의 경우가 평균 투자규모가 가장 큰 편이었고, 일본地域으로부터의 경우가 평균 투자규모가 가장 작은 편이었다. 한편, 최초 투자액은 현액비율의 구성비를 비교하여 증액 편향을 살펴보면 미국기업들의 증액이 가장 확연하게 노출되었고, 일본기업들의 증액비율은 제일 저조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절대금액으로 보면 일본기업들의 증액이 가장 많았다. 이제 이를 기업들의 소유형태별 분류, 조합하여 〈표 5〉과 같다. 우선, 외국인 완전소유기업의 구성비율은 대부분 미국이 가장 높고 다음에 일본, 다른 일본지역의 순으로 되어 있다. 반면, 외국인 소유기업의 조합비율은 상대적으로 나머지 성격의 유형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수 소유기업의 성질은 완전소유기업의 경우와, 상호 주식회사의 성질은 소수 소유기업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합비율은 미국기업들의 경우, 일본이나, 유럽기업들의 위아래 한국기업의 순으로 보아서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기업가들이 이러한 주요한 악화은 우리 나라에서만 발생하지 않는 세계의 주요한 표준으로 Feldman

### 표 4. 국적 외국인 투자현황

<table>
<thead>
<tr>
<th>기업수</th>
<th>설립비율(%)</th>
<th>설립투자금액(천원)</th>
</tr>
</thead>
<tbody>
<tr>
<td>일본</td>
<td>583(75.9)</td>
<td>347,467(198,200)</td>
</tr>
<tr>
<td>(在日僑胞)</td>
<td>588(122,412)</td>
<td></td>
</tr>
<tr>
<td>미국</td>
<td>107(14.4)</td>
<td>114,165(1,893)</td>
</tr>
<tr>
<td>(在美僑胞)</td>
<td>12(1,515)</td>
<td></td>
</tr>
<tr>
<td>유럽</td>
<td>35(4.7)</td>
<td>79,976(120)</td>
</tr>
<tr>
<td>(在美僑胞)</td>
<td>1(12.9)</td>
<td></td>
</tr>
<tr>
<td>기타</td>
<td>37(5.0)</td>
<td>76,784(114,857)</td>
</tr>
<tr>
<td>合計</td>
<td>742(100.0)</td>
<td>618,392(938,624)</td>
</tr>
</tbody>
</table>

**주:** 근로자와의 조합 비율을 제외한 1979.1.1. 현액비율 투자현황에.資料: 經濟企劃院。

### 표 5. 소유형태별 국적 분포

<table>
<thead>
<tr>
<th></th>
<th>소수</th>
<th>공통</th>
<th>다수</th>
<th>완전</th>
<th>평균</th>
<th>기업수</th>
</tr>
</thead>
<tbody>
<tr>
<td>일본</td>
<td>51.3</td>
<td>32.7</td>
<td>11.0</td>
<td>5.0</td>
<td>100.0</td>
<td>51.6</td>
</tr>
<tr>
<td>미국</td>
<td>35.5</td>
<td>30.8</td>
<td>14.0</td>
<td>19.6</td>
<td>100.0</td>
<td>51.4</td>
</tr>
<tr>
<td>유럽</td>
<td>42.9</td>
<td>31.4</td>
<td>14.3</td>
<td>11.4</td>
<td>100.0</td>
<td>53.5</td>
</tr>
<tr>
<td>기타</td>
<td>54.1</td>
<td>27.0</td>
<td>13.5</td>
<td>5.4</td>
<td>100.0</td>
<td>44.3</td>
</tr>
<tr>
<td>평균</td>
<td>48.8</td>
<td>32.1</td>
<td>11.7</td>
<td>7.4</td>
<td>100.0</td>
<td>52.2</td>
</tr>
</tbody>
</table>

**주:** 최초 투자비율 비율 조합비율 나타내 주고 있음.資料: 經濟企劃院。

5) 在日僑胞의 경우 평균투자 규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두 특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전체의 주요한 편향으로는 볼 수 없다.
表 6. 美國企業의 所有形態別 海外進出現況

<table>
<thead>
<tr>
<th></th>
<th>小數</th>
<th>共同</th>
<th>多數</th>
<th>完全</th>
<th>不明</th>
<th>計</th>
<th>企</th>
<th>養</th>
</tr>
</thead>
<tbody>
<tr>
<td>投資比率</td>
<td>(5〜49)</td>
<td>(50)</td>
<td>(51〜94)</td>
<td>(95〜100)</td>
<td></td>
<td>100.0</td>
<td></td>
<td></td>
</tr>
<tr>
<td>1951〜55</td>
<td>8.3</td>
<td>5.7</td>
<td>10.0</td>
<td>70.1</td>
<td>6.0</td>
<td>100.0</td>
<td>(989)</td>
<td></td>
</tr>
<tr>
<td>1956〜60</td>
<td>8.8</td>
<td>7.7</td>
<td>9.7</td>
<td>66.6</td>
<td>7.2</td>
<td>100.0</td>
<td>(1,957)</td>
<td></td>
</tr>
<tr>
<td>1961〜65</td>
<td>10.5</td>
<td>9.5</td>
<td>11.7</td>
<td>60.7</td>
<td>7.6</td>
<td>100.0</td>
<td>(3,225)</td>
<td></td>
</tr>
<tr>
<td>1966〜70</td>
<td>8.5</td>
<td>7.3</td>
<td>9.4</td>
<td>71.2</td>
<td>3.7</td>
<td>100.0</td>
<td>(4,383)</td>
<td></td>
</tr>
<tr>
<td>1971</td>
<td>8.3</td>
<td>8.0</td>
<td>8.5</td>
<td>73.9</td>
<td>1.3</td>
<td>100.0</td>
<td>(905)</td>
<td></td>
</tr>
<tr>
<td>1972</td>
<td>9.0</td>
<td>8.7</td>
<td>9.6</td>
<td>72.3</td>
<td>0.5</td>
<td>100.0</td>
<td>(646)</td>
<td></td>
</tr>
<tr>
<td>1973</td>
<td>11.7</td>
<td>8.1</td>
<td>9.8</td>
<td>69.0</td>
<td>1.4</td>
<td>100.0</td>
<td>(693)</td>
<td></td>
</tr>
<tr>
<td>1974</td>
<td>13.2</td>
<td>8.1</td>
<td>7.8</td>
<td>70.0</td>
<td>1.0</td>
<td>100.0</td>
<td>(619)</td>
<td></td>
</tr>
<tr>
<td>1975</td>
<td>15.4</td>
<td>10.6</td>
<td>8.5</td>
<td>65.4</td>
<td>0</td>
<td>100.0</td>
<td>(376)</td>
<td></td>
</tr>
<tr>
<td>1975年末累計</td>
<td>9.6</td>
<td>7.6</td>
<td>9.7</td>
<td>69.1</td>
<td>3.9</td>
<td>100.0</td>
<td>(11,198)</td>
<td></td>
</tr>
</tbody>
</table>

注: 1) 投資比率: 基準 構成比를 나타내 주고 있음.
例外시킬 수 있다.
서 美国内 180개 多國籍 母企業들의 海外進出
現況에 대하여 1975년 말 현재 所有形態
分布를 調査한 것이다. 同表를 보면 亚洲 地域
內的小數 所有企業과 共同 所有企業의
比重이 약간 增加하는 趨勢を 보여 주고 있으나
1975년말까지도 美国内 的海外投資企業中 69.1
%에 달하는 企業이 美國投資先의 完全所有企
業이었음을 알 수 있다.

美國企業들의 이러한 一般的의 傾向을 감안하
고 우리나라에 進出한 美國企業들의 所有形態
分布를 다시 살펴보면 我們는 彼他國々에
비하여 多く 임직한 投資比率統制를 할 事
으로 해석된다. 以上記 美國企業들의 國別
所有形態別 分布를 살펴보면 上記이 나타나고
있다.

〈表 7〉 美國 子會社등의 地域別 所有形態別 分布
（%％）

<table>
<thead>
<tr>
<th>小數</th>
<th>共同</th>
<th>多數</th>
<th>完全</th>
<th>不明</th>
<th>計</th>
<th>企業個數</th>
</tr>
</thead>
<tbody>
<tr>
<td>投資比率</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49)</td>
<td>(50)</td>
<td>(51~94)</td>
<td>(95~100)</td>
<td></td>
<td></td>
<td></td>
</tr>
<tr>
<td>輕</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7.6</td>
<td>6.9</td>
<td>10.1</td>
<td>71.4</td>
<td>4.0</td>
<td>100.0</td>
<td>(4,829)</td>
</tr>
<tr>
<td>中南美</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2.2</td>
<td>6.5</td>
<td>10.6</td>
<td>66.8</td>
<td>4.0</td>
<td>100.0</td>
<td>(2,462)</td>
</tr>
<tr>
<td>阿洲</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4</td>
<td>6.2</td>
<td>12.5</td>
<td>62.4</td>
<td>3.6</td>
<td>100.0</td>
<td>(585)</td>
</tr>
<tr>
<td>亞洲</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6.9</td>
<td>17.3</td>
<td>9.9</td>
<td>52.0</td>
<td>4.4</td>
<td>100.0</td>
<td>(1,148)</td>
</tr>
<tr>
<td>韓國</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1.6)</td>
<td>(37.8)</td>
<td>(10.8)</td>
<td>(29.7)</td>
<td>(0)</td>
<td>(100.0)</td>
<td>(37)</td>
</tr>
<tr>
<td>其他</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7.6</td>
<td>7.1</td>
<td>10.3</td>
<td>71.2</td>
<td>3.8</td>
<td>100.0</td>
<td>(1,011)</td>
</tr>
<tr>
<td>計</td>
<td>9.6</td>
<td>7.6</td>
<td>9.7</td>
<td>69.1</td>
<td>3.9</td>
<td>100.0</td>
</tr>
</tbody>
</table>

注：1975년말 現在 現存企業의 最初投資比率 差額임.
資料：〈表 6〉와 同一 p.314~315.

〈表 8〉 日本 現地法人의 地域別 所有形態別 分布
（%％）

<table>
<thead>
<tr>
<th>小數</th>
<th>共同</th>
<th>多數</th>
<th>完全</th>
<th>計</th>
<th>企業個數</th>
</tr>
</thead>
<tbody>
<tr>
<td>北美</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4.1</td>
<td>7.1</td>
<td>12.9</td>
<td>65.9</td>
<td>100.0</td>
<td>(707)</td>
</tr>
<tr>
<td>中南美</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9.6</td>
<td>6.2</td>
<td>19.0</td>
<td>45.3</td>
<td>100.0</td>
<td>(517)</td>
</tr>
<tr>
<td>亞洲</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韓國)</td>
<td>(48.5)</td>
<td>(34.7)</td>
<td>(11.5)</td>
<td>(5.3)</td>
<td>(100.0)</td>
</tr>
<tr>
<td>中 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0.0</td>
<td>19.6</td>
<td>5.9</td>
<td>25.5</td>
<td>100.0</td>
<td>(51)</td>
</tr>
<tr>
<td>歐洲</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0</td>
<td>7.4</td>
<td>15.7</td>
<td>57.0</td>
<td>100.0</td>
<td>(446)</td>
</tr>
<tr>
<td>大洋洲</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4.0</td>
<td>11.3</td>
<td>15.8</td>
<td>38.9</td>
<td>100.0</td>
<td>(203)</td>
</tr>
<tr>
<td>阿洲</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6.2</td>
<td>12.3</td>
<td>16.6</td>
<td>35.0</td>
<td>100.0</td>
<td>(163)</td>
</tr>
<tr>
<td>計</td>
<td>31.8</td>
<td>10.1</td>
<td>17.7</td>
<td>40.4</td>
<td>100.0</td>
</tr>
</tbody>
</table>

注：1）1977년말 現在 現存企業의 最初投資比率 差額임.
2）關內統計로 日本側統計와 當然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資料：日本通產省 "我が国企業の海外事業活動(第4回調査)" 1979, p.101~103.

8）外國의 경우 60年代 以前에 進出한 外國人投資企業들이 我們나라에 비하여 相對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完全所有企業의
比重이 높은 반도 있으나 60年代 以後 進出한 企業들만을 根本으로 比較하여 보이도 비슷한 結論이 나올 것으로 想像
는 분명 미국과의 간호 내 유전자 연구를 억제하는
은 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고 있다.

일본 해외에서 기업의 일본에 비해 국외의 비중이
와 같이 미국에 비해는 소득의 비중이
고 완화된 기업의 비중이 적은 것이다. 그

<table>
<thead>
<tr>
<th>연도</th>
<th>소규모</th>
<th>중간규모</th>
<th>대규모</th>
<th>전체</th>
<th>이율</th>
</tr>
</thead>
<tbody>
<tr>
<td>1962-66</td>
<td>44.4</td>
<td>22.2</td>
<td>11.1</td>
<td>22.2</td>
<td>100.0</td>
</tr>
<tr>
<td>1967</td>
<td>35.7</td>
<td>21.4</td>
<td>7.1</td>
<td>35.7</td>
<td>100.0</td>
</tr>
<tr>
<td>1968</td>
<td>40.0</td>
<td>16.0</td>
<td>12.0</td>
<td>32.0</td>
<td>100.0</td>
</tr>
<tr>
<td>1969</td>
<td>35.5</td>
<td>16.1</td>
<td>16.1</td>
<td>32.3</td>
<td>100.0</td>
</tr>
<tr>
<td>1970</td>
<td>33.3</td>
<td>15.4</td>
<td>17.9</td>
<td>33.3</td>
<td>100.0</td>
</tr>
<tr>
<td>1971</td>
<td>33.3</td>
<td>15.6</td>
<td>15.6</td>
<td>35.6</td>
<td>100.0</td>
</tr>
<tr>
<td>1972</td>
<td>29.1</td>
<td>20.0</td>
<td>14.5</td>
<td>36.4</td>
<td>100.0</td>
</tr>
<tr>
<td>1973</td>
<td>33.3</td>
<td>23.9</td>
<td>15.5</td>
<td>29.6</td>
<td>100.0</td>
</tr>
<tr>
<td>1974</td>
<td>30.8</td>
<td>26.9</td>
<td>15.4</td>
<td>26.9</td>
<td>100.0</td>
</tr>
<tr>
<td>1975</td>
<td>29.8</td>
<td>28.6</td>
<td>16.7</td>
<td>25.0</td>
<td>100.0</td>
</tr>
<tr>
<td>1976</td>
<td>32.0</td>
<td>30.9</td>
<td>15.5</td>
<td>21.6</td>
<td>100.0</td>
</tr>
<tr>
<td>1977</td>
<td>35.5</td>
<td>30.8</td>
<td>14.0</td>
<td>19.6</td>
<td>100.0</td>
</tr>
</tbody>
</table>

(단위: %)

**표 9** 所有形態의 年度別 累積分布(美國人投資企業)

<table>
<thead>
<tr>
<th>연도</th>
<th>소규모</th>
<th>중간규모</th>
<th>대규모</th>
<th>전체</th>
<th>이율</th>
</tr>
</thead>
<tbody>
<tr>
<td>1962-66</td>
<td>0</td>
<td>50.0</td>
<td>50.0</td>
<td>0</td>
<td>100.0</td>
</tr>
<tr>
<td>1967</td>
<td>50.0</td>
<td>16.7</td>
<td>33.3</td>
<td>0</td>
<td>100.0</td>
</tr>
<tr>
<td>1968</td>
<td>35.3</td>
<td>11.8</td>
<td>41.2</td>
<td>11.8</td>
<td>100.0</td>
</tr>
<tr>
<td>1969</td>
<td>41.2</td>
<td>26.5</td>
<td>20.6</td>
<td>11.8</td>
<td>100.0</td>
</tr>
<tr>
<td>1970</td>
<td>43.9</td>
<td>28.0</td>
<td>15.9</td>
<td>12.2</td>
<td>100.0</td>
</tr>
<tr>
<td>1971</td>
<td>43.0</td>
<td>32.8</td>
<td>15.6</td>
<td>8.6</td>
<td>100.0</td>
</tr>
<tr>
<td>1972</td>
<td>40.3</td>
<td>34.0</td>
<td>17.0</td>
<td>8.7</td>
<td>100.0</td>
</tr>
<tr>
<td>1973</td>
<td>46.9</td>
<td>33.9</td>
<td>13.0</td>
<td>6.2</td>
<td>100.0</td>
</tr>
<tr>
<td>1974</td>
<td>48.4</td>
<td>34.9</td>
<td>11.3</td>
<td>5.4</td>
<td>100.0</td>
</tr>
<tr>
<td>1975</td>
<td>48.5</td>
<td>34.7</td>
<td>11.5</td>
<td>5.3</td>
<td>100.0</td>
</tr>
<tr>
<td>1976</td>
<td>49.5</td>
<td>33.7</td>
<td>11.4</td>
<td>5.4</td>
<td>100.0</td>
</tr>
<tr>
<td>1977</td>
<td>50.2</td>
<td>33.1</td>
<td>11.4</td>
<td>5.2</td>
<td>100.0</td>
</tr>
<tr>
<td>1978</td>
<td>51.3</td>
<td>32.7</td>
<td>11.0</td>
<td>5.0</td>
<td>100.0</td>
</tr>
</tbody>
</table>

(단위: %)

**표 10** 所有形態의 年度別 累積分布(日本人投資企業)

이후에도 분포가 나타난 66개 国家中 1975년에
是 在 所有形態的 比重은 우리나라의 29.7%로

يمكن أن تعبئ whopping 30%, 日本 33.1%, 사우디아라비아 36.4%, 나라카와 38.1%, 이란 39.5%,

10개국에 분류하였다.

41
리나 일본의 경우 1977년 말 현재 세계의
으로는 약 40%의 현지法人이, 그리고 일본의
경제의 성장에 따라 항상 우위이 있는 아
시아에서도 23.3%의 현지法人이 일본인 완
全소유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 경우 완全소유의 비중 5.3%는 그라
다게 6.5%로 높은 수준으로 정부의 투자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주고 있다 하겠다.

이제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있는 미국과
日本企業의 경우, 所有形態別 推移는 下表과 같은 사
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표 9~표 10). 즉, 완全소유의
企業의 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는 완全소유의
比重이 감소하며, 共有 소유의比重이 주로 증
가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完全( 혹은 多數) 所
유의比重이 더하여 小数 소유의比重이 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推移는 前述한美國企業들의 小数企業에
顧向을 다시 한번 간
反映하여 주고 있다
하다고 하겠다.

미국企業들의 이러한 支配權喪失不顧傾向은
投資比率의 変化件数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표 11)은 國別로 最初 投資比率이 그 후
減少한企業數를 나타내 주고 있는 바, 美國
의 경우 投資比率 減少企業數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國家에 따라 產業別 投資比率이 다
를 수 있고 產業別로 平均投資比率이 體系의
으로 다를 수 있는 바, 이에 관하여는 다음
產業別 投資比率推移에서 검토할 얘기이다.

IV. 產業別 投資比率

우선 產業別 外國人投資現況은 國別로 살펴
보면 (표 12)와 같다. 美國의 경우는 그전 宿
泊業, 化學, 組立金屬, 織維關聯部門의
投資가 많았으며 美國과 西欧의 경우에는 化學,
組立金屬關聯部門의 投資가 많았다. 전체적
으로 보면 化學 (36), 組立金屬 (20), 宿泊業
(18), 織維部門 (8)에의 投資가 總外國人投資
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이체, 韓國家標準產業分類(KSIC) 207 單位 產業
別로 外國人投資企業의 所有形態를 살펴보면
(表 13)과 같다. 外國人 완全소유의企業이 相對
의으로 많은 部門은 非金屬織物, 對事業體서
비스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外國人 小数所

9) 日本의 경우 관서 출自由地域에 進出한 103개의 日
本法人 투資企業을 標本에 향해 299건의
所有企業의
比重이 15.9%로 증가하여 이 역시世上에서 가장 낮
은 수준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10) 西欧的 경우는 標本数가 많아 확실한 推移을 알기 어
려웠다.
11) Franko(1971)는 合作投資企業의 投資比率變化要因에
관하여 母企業의 面積, 產業特性 등을 이용하여 理論
한 분석을 하고 있다.
12) 產業別 外國人投資의 比重은 外國人投資 絕對額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정정한 자 산별로 外
國人投資의 重要性은 國內市場規模, 產業的 相對的
資本集約度 등을 간接하여야만 알 수 있다.

<table>
<thead>
<tr>
<th>表 11</th>
<th>投資比率 減少企業數</th>
</tr>
</thead>
<tbody>
<tr>
<td>投資比率</td>
<td>減少企業數(A)</td>
</tr>
<tr>
<td>日本</td>
<td>125</td>
</tr>
<tr>
<td>美國</td>
<td>9</td>
</tr>
<tr>
<td>西欧</td>
<td>3</td>
</tr>
<tr>
<td>其他</td>
<td>9</td>
</tr>
<tr>
<td>計</td>
<td>146</td>
</tr>
</tbody>
</table>

注: 1979.1.1. 現存 投資比率보다
저은 企業數임.
資料: 經濟企劃院.
### 表 12 國別 產業別 外國人 投資現況

(단위: 만)  

<table>
<thead>
<tr>
<th></th>
<th>日 本</th>
<th>美 國</th>
<th>西 歐</th>
<th>其 他</th>
<th>計</th>
</tr>
</thead>
<tbody>
<tr>
<td></td>
<td>投資額</td>
<td>企業數</td>
<td>投資額</td>
<td>企業數</td>
<td>投資額</td>
</tr>
<tr>
<td>農 林 水 產</td>
<td>1,784</td>
<td>10</td>
<td>—</td>
<td>—</td>
<td>—</td>
</tr>
<tr>
<td>飲 食 料 品・飲 食</td>
<td>5,967</td>
<td>29</td>
<td>5,504</td>
<td>12</td>
<td>1,567</td>
</tr>
<tr>
<td>鐵 鋼・服 裝・家 廚</td>
<td>76,719</td>
<td>84</td>
<td>1,005</td>
<td>6</td>
<td>950</td>
</tr>
<tr>
<td>化 学・製 品</td>
<td>492</td>
<td>6</td>
<td>—</td>
<td>—</td>
<td>—</td>
</tr>
<tr>
<td>金 属・印刷・出版</td>
<td>4,694</td>
<td>10</td>
<td>1,675</td>
<td>2</td>
<td>—</td>
</tr>
<tr>
<td>化 学・石油・プラスチック</td>
<td>118,583</td>
<td>71</td>
<td>82,050</td>
<td>17</td>
<td>75,554</td>
</tr>
<tr>
<td>非 金 屬 鑄件</td>
<td>12,846</td>
<td>31</td>
<td>2,400</td>
<td>1</td>
<td>590</td>
</tr>
<tr>
<td>第 1 次 金 屬</td>
<td>18,013</td>
<td>23</td>
<td>—</td>
<td>—</td>
<td>2,781</td>
</tr>
<tr>
<td>與 金 屬・機械 裝備</td>
<td>91,519</td>
<td>229</td>
<td>69,127</td>
<td>47</td>
<td>21,981</td>
</tr>
<tr>
<td>基 芳 製 造 業</td>
<td>5,613</td>
<td>37</td>
<td>750</td>
<td>5</td>
<td>—</td>
</tr>
<tr>
<td>宿 泊 業</td>
<td>150,550</td>
<td>18</td>
<td>3,300</td>
<td>1</td>
<td>4,620</td>
</tr>
<tr>
<td>运 输・倉 庫</td>
<td>799</td>
<td>2</td>
<td>12,147</td>
<td>5</td>
<td>—</td>
</tr>
<tr>
<td>金 融</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對 事 業 服 務</td>
<td>9,290</td>
<td>9</td>
<td>23,692</td>
<td>10</td>
<td>—</td>
</tr>
<tr>
<td>基 芳 服 務</td>
<td>3,798</td>
<td>4</td>
<td>50</td>
<td>1</td>
<td>—</td>
</tr>
<tr>
<td>計</td>
<td>500,566</td>
<td>563</td>
<td>201,700</td>
<td>107</td>
<td>121,501</td>
</tr>
</tbody>
</table>

注：1979.1.1. 現在 現存企業数 現存投資額から推計。
資料：外資企庫院。

### 表 13 產業別 所有形態別 分布

(단위：%)  

<table>
<thead>
<tr>
<th></th>
<th>小 數</th>
<th>共 同</th>
<th>多 數</th>
<th>完 全</th>
<th>計</th>
</tr>
</thead>
<tbody>
<tr>
<td></td>
<td>平 均</td>
<td>投資比率</td>
<td>件 數</td>
<td></td>
<td></td>
</tr>
<tr>
<td>農 林 水 產</td>
<td>81.8</td>
<td>18.2</td>
<td>—</td>
<td>—</td>
<td>100.0</td>
</tr>
<tr>
<td>飲 食 料 品・飲 食</td>
<td>73.9</td>
<td>15.2</td>
<td>8.7</td>
<td>2.2</td>
<td>100.0</td>
</tr>
<tr>
<td>鐵 鋼・服 裝・家 廚</td>
<td>67.4</td>
<td>10.9</td>
<td>15.2</td>
<td>6.5</td>
<td>100.0</td>
</tr>
<tr>
<td>化 学・製 品</td>
<td>28.6</td>
<td>71.4</td>
<td>—</td>
<td>—</td>
<td>100.0</td>
</tr>
<tr>
<td>金 属・印刷・出版</td>
<td>38.5</td>
<td>38.5</td>
<td>23.1</td>
<td>—</td>
<td>100.0</td>
</tr>
<tr>
<td>化 学・石油・プラスチック</td>
<td>38.3</td>
<td>46.7</td>
<td>8.4</td>
<td>6.5</td>
<td>100.0</td>
</tr>
<tr>
<td>非 金 屬 鑄件</td>
<td>58.8</td>
<td>17.6</td>
<td>5.9</td>
<td>17.6</td>
<td>100.0</td>
</tr>
<tr>
<td>第 1 次 金 屬</td>
<td>66.7</td>
<td>25.9</td>
<td>7.4</td>
<td>—</td>
<td>100.0</td>
</tr>
<tr>
<td>與 金 屬・機械 裝備</td>
<td>44.3</td>
<td>36.5</td>
<td>10.5</td>
<td>8.8</td>
<td>100.0</td>
</tr>
<tr>
<td>基 芳 製 造 業</td>
<td>40.5</td>
<td>33.3</td>
<td>16.7</td>
<td>9.5</td>
<td>100.0</td>
</tr>
<tr>
<td>宿 泊 業</td>
<td>28.0</td>
<td>28.0</td>
<td>36.0</td>
<td>8.0</td>
<td>100.0</td>
</tr>
<tr>
<td>运 输・倉 庫</td>
<td>22.2</td>
<td>77.8</td>
<td>—</td>
<td>—</td>
<td>100.0</td>
</tr>
<tr>
<td>金 融</td>
<td>44.4</td>
<td>44.4</td>
<td>11.1</td>
<td>—</td>
<td>100.0</td>
</tr>
<tr>
<td>對 事 業 服 務</td>
<td>42.1</td>
<td>26.3</td>
<td>15.8</td>
<td>15.8</td>
<td>100.0</td>
</tr>
<tr>
<td>基 芳 服 務</td>
<td>40.0</td>
<td>20.0</td>
<td>40.0</td>
<td>—</td>
<td>100.0</td>
</tr>
<tr>
<td>計</td>
<td>48.8</td>
<td>32.1</td>
<td>11.7</td>
<td>7.4</td>
<td>100.0</td>
</tr>
</tbody>
</table>

注：最近投資比率 基準日。
資料：外資企庫院。
有企業이 많은 部門은 畜林水産，飲食料品，
담배，織維，衣服，家具，第1次金屬 等으로
 나타나고 있다。平均投資比率是 宿泊業，サービス
業，其他 製造業，非金屬礦物 等相對的
으로 높은 水準을 보여 주고 있다。

① 產業別 投資比率에 관한 分析을 위하여는
 우선 이에 관한 政府의 指針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1973년 3月부터 施行され어 産業
別 外國人投資比率에 관한 政府의 指針은 大
체로 다음과 같았다13)。

1. 單純勞動集約의 事業
2. 單純保稅加工事業
3. 主要原資材を 國内に 依存する 事業
4. 内需を 互に 目的とする 事業

물론，그러나 다음 事業들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外國を 允許하고 있다。

1. 國內関連企業 및 市場・技術面에서 競爭
하지 않는 産業輸出事業
2. 國内経済에 큰 影響을 미치는 技術集約
의 輸出 또는 産業代替用原資材 事業
3. 外國에서도 100% 以外には 投資하지 않
는，그러나 國内誘致が 質量的な 多國籍
企業의 事業
4. 所要資金，償還期間， 高度의 技術 등으
로 國内関連企業들의 投資가 不可能한
事業
5. 特定工場入住事業
6. 僑胞投資事業

⑦ 기타 政策의으로 필요한 事業

以上 政府의 指針을 살펴보면 例外의인 경
우가 매우 포괄적이고 競争하여 産業別로
特性에 따른 投資比率이 體系의差異를 발견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런다。 예를 들어
單純勞動集約의 産業이라도 全量輸出事業이면
過半數投資가 가능하다。 內需を 目的とする
事業이라도 僑胞投資事業인 경우에는 超
半數投資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1節에서 言及한 대로 各 外國人 投資企
業의 投資比率은(따라서 細菌製造業 平均投資
比率)資本導入國의 投資比率에 関한 政策
以外에서 個別企業의 戦略，製品販売市場의
性格。他國 投資競争企業の 存在와 등에 影
響을 받기 때문에 향후 개개의 産業特性으로 産
業間 投資比率差異를 설명하기는 매우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産業別 投資比率에 관
한 政府施策이 그 동안 얼마나 有効하였는가
혹은 施策中 어느 項目이 가장 決策上 作用す
ているかを 考察하기 위하여 産業의 特性과 投
資比率과의 關係를 살펴보았다。

産業別 外國人平均投資比率과 各 産業特性
과의 關係를 體系의으로 決定하기 위하여是
産業分類を 보다 細分化させる 것이 필요하
다。우리나라의 경우 産業의 特性에 有効한 自
由生の生産計画の 時間 KSIC 5單位 産
業까지 入手可能もあり에 底本에した 分析は
製造業에 限定된 것이다。

1978年末 現在 外國人 製造業내의 外國人
投資(馬山輸出自由地域 除外)は 総 196個 5
単位 KSIC産業들에 分布되어 있었다。 これ<br>2産
業(投影機及 映写機 製造業，電子機器 製造
業)에 의하여는 産業特性資料가 나타나지 않
고 있었기 때문에 次のの 分析は 総 194個 5
表 14 外國人 投資比率와 産業特性과의 關係

<table>
<thead>
<tr>
<th>産業特性</th>
<th>投資比率</th>
<th>外國人投資比率平均</th>
</tr>
</thead>
<tbody>
<tr>
<td>全部</td>
<td>-0.214**</td>
<td>-0.277**</td>
</tr>
<tr>
<td>日本</td>
<td>0.067</td>
<td>0.169**</td>
</tr>
<tr>
<td>美國</td>
<td>0.274**</td>
<td>0.285**</td>
</tr>
<tr>
<td>産業數</td>
<td>194</td>
<td>(194) (175) (51)</td>
</tr>
</tbody>
</table>

注: 1) 此表の 方程式の 回帰相関係数로 나타낸． *와 **
   는 調査期間的 相関係数 偶然 5% 및 1%의 水準에서 统計의 信頼度를 갖추고 있는 의미함.
   2) 産業特性과 方程式 및 資料出處에 관하여는 本文参照． 産業的 韜厳是 製造業에 한하였음．
경우는 허위라고 한다는데 외국인 평균투자비율과 모두 높은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관계는 또한 통계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제론은 우리나라의 경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상기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내수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내수산업과의 관계가 강조되어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대로 단독이용의 산업단수록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상기와 같은 결과는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내수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내수산업과의 관계가 강조되어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대로 단독이용의 산업단수록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내수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내수산업과의 관계가 강조되어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대로 단독이용의 산업단수록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내수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내수산업과의 관계가 강조되어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대로 단독이용의 산업단수록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내수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내수산업과의 관계가 강조되어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대로 단독이용의 산업단수록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내수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내수산업과의 관계가 강조되어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대로 단독이용의 산업단수록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내수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내수산업과의 관계가 강조되어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대로 단독이용의 산업단수록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내수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내수산업과의 관계가 강조되어 기술이용의 산업단수록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대로 단독이용의 산업단수록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인수록, 그리고 1973년 3월 이전 進出한 외국인投資企業이나 像在投資企業이 많은 
産業인수록 외국人平均投資比率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技術集約의 産業이나 技術導入 
을 한 외국人投資企業이 있는 産業인수록 외 
國人投資比率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73년 3월 이전 進出 企業比重變數는 
 매우 중요한 变數로 나타나고 있는데, 외國人 
投資企業 進出時期에 관한 分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자 하였다. 技術 
導入이나 变數는 技術集約度와 같이 사용하 
 였을 경우에는 統計的 信頼度가 어느 정도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輸出集約度와 같 
 이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統計的 信頼度가 배 
 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輸出集 
約度와 技術導入變數 사이의 높은 相關關係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19) 技術導入變數 
自體는 想像한 대로 어느 정도 負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全體의 
으로는 이들 变數들로서 설명할 수 있는 産業 
別 平均投資比率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바, 이는 前述한 대로 投資比率이 다른 많은 
要素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不可避 
한 것으로 보인다 20).

마지막으로 産業別 平均投資比率이 國別로 
비슷한 편을 보여 주고 있는가를 檢討하여 
보았다. 만약 외國人投資가 Caves(1971)가 主 
張하는 데로 主로 産業的 特性에 따라 發生할 
다면, 産業別 投資比率은 어느 國家를 막론하 
고 비슷한 편을 보일 것이다.

〈表 15〉 産業別 外國人 投資比率의 決定要因

<table>
<thead>
<tr>
<th></th>
<th>常 数</th>
<th>技術導入</th>
<th>機械導入</th>
<th>機械導出</th>
<th>資本集約</th>
<th>本植出</th>
<th>73.3以前 進出</th>
<th>像在出與否</th>
<th>技術導入與否</th>
<th>R^2</th>
</tr>
</thead>
<tbody>
<tr>
<td>(1)</td>
<td>58.17 (20.51)**</td>
<td>-9.58 (3.11)**</td>
<td>0.15 (1.16)</td>
<td>0.15 (1.16)</td>
<td>0.15 (1.16)</td>
<td>0.15 (1.16)</td>
<td>0.15 (1.16)</td>
<td>0.15 (1.16)</td>
<td>0.15 (1.16)</td>
<td>0.15 (1.16)</td>
</tr>
<tr>
<td>(2)</td>
<td>52.76 (18.65)**</td>
<td>-9.99 (3.45)**</td>
<td>0.17 (1.38)</td>
<td>0.17 (1.38)</td>
<td>0.17 (1.38)</td>
<td>0.17 (1.38)</td>
<td>0.17 (1.38)</td>
<td>0.17 (1.38)</td>
<td>0.17 (1.38)</td>
<td>0.17 (1.38)</td>
</tr>
<tr>
<td>(3)</td>
<td>50.92 (17.02)**</td>
<td>-9.82 (3.05)**</td>
<td>0.13 (1.06)</td>
<td>0.13 (1.06)</td>
<td>0.13 (1.06)</td>
<td>0.13 (1.06)</td>
<td>0.13 (1.06)</td>
<td>0.13 (1.06)</td>
<td>0.13 (1.06)</td>
<td>0.13 (1.06)</td>
</tr>
<tr>
<td>(4)</td>
<td>51.02 (17.79)**</td>
<td>-7.37 (2.48)**</td>
<td>0.10 (0.86)</td>
<td>0.10 (0.86)</td>
<td>0.10 (0.86)</td>
<td>0.10 (0.86)</td>
<td>0.10 (0.86)</td>
<td>0.10 (0.86)</td>
<td>0.10 (0.86)</td>
<td>0.10 (0.86)</td>
</tr>
<tr>
<td>(5)</td>
<td>43.93 (21.04)**</td>
<td>0.10 (4.04)**</td>
<td>0.16 (1.26)</td>
<td>0.16 (1.26)</td>
<td>0.16 (1.26)</td>
<td>0.16 (1.26)</td>
<td>0.16 (1.26)</td>
<td>0.16 (1.26)</td>
<td>0.16 (1.26)</td>
<td>0.16 (1.26)</td>
</tr>
<tr>
<td>(6)</td>
<td>37.02 (16.12)**</td>
<td>0.12 (4.85)**</td>
<td>0.18 (1.53)</td>
<td>0.18 (1.53)</td>
<td>0.18 (1.53)</td>
<td>0.18 (1.53)</td>
<td>0.18 (1.53)</td>
<td>0.18 (1.53)</td>
<td>0.18 (1.53)</td>
<td>0.18 (1.53)</td>
</tr>
<tr>
<td>(7)</td>
<td>36.48 (16.07)**</td>
<td>0.11 (4.66)**</td>
<td>0.14 (1.21)</td>
<td>0.14 (1.21)</td>
<td>0.14 (1.21)</td>
<td>0.14 (1.21)</td>
<td>0.14 (1.21)</td>
<td>0.14 (1.21)</td>
<td>0.14 (1.21)</td>
<td>0.14 (1.21)</td>
</tr>
<tr>
<td>(8)</td>
<td>37.91 (14.62)**</td>
<td>0.10 (3.95)**</td>
<td>0.12 (1.07)</td>
<td>0.12 (1.07)</td>
<td>0.12 (1.07)</td>
<td>0.12 (1.07)</td>
<td>0.12 (1.07)</td>
<td>0.12 (1.07)</td>
<td>0.12 (1.07)</td>
<td>0.12 (1.07)</td>
</tr>
</tbody>
</table>

注: 1) 사용된 变數의 定義 및 資料出處에 관하여는 本文 参照。
2) 資料의 안의 숫자는 %값을 나타내며 *, **는 나타난 係数가 각각 5% 및 1% 수준에서 통계적 신뢰도가 있을음을 
 나타냅니다.

19) 輸出集約의 産業別率 수 技術導入變數한 외國人要素가 없었음. 此 变數間的 相關係數는 -8.344로 統計的으론 1% 水
平面에서 신뢰도가 있음을.
20) 産業別 平均投資比率도 企業別 投資比率가 다소 가지로 40~50%이 많이 集中되어 있는 바 周邊의 彎曲 特定産業들로 
한된 統計的 矛曲을 檢討하기 위하여 平均投資比率 30% 以下 60% 以上 産業들을 除하고 같은 回歸分析을 하여 보 
아도 〈表 15〉와 비슷한 結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일본과 미국인 기업들이 공존하고 있는 37개 5개의 한국, 미국 기업들의 평균 투자율을 비교하여 보면 두 비율간에는 0.591이라는 높은 (1% 수준의 통계적 신뢰도)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산업의 외국인 기업들의 규모와 상관없이 비슷한 성질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관하여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V. 규모별 투자비율

본절에서는 투자자의 규모, 그리고 국기의 규모 등에 대한 투자비율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보았다. 투자자의 규모와 투자비율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투자비율이 크면 투수록 위험 부담이 커지므로, 기업이 투자비율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을 것임을 확인하는 점을 검토하기 위하여이다. 먼저 투자규모별로 외국인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표 4)을 통하여 검토한 바와 같이, 기, 지의, 기업의 투자율이 규모가 크고,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평균의 투자 규모가 작을수록, 나타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본 점을 본 투자비율은 보다 깊은 관계를 보였다.

이에 투자규모별로 평균 투자비율을 토는 보다, (표 17)과 같다. (표 4)을 통하여 검토한 바와 같이, 기, 지의, 기업의 투자율이 규모가 작을수록, 나타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본 점을 본 투자비율은 보다 깊은 관계를 보았다.

表 16 OUNTRY별 投資規模別 外國人投資企業分布

<table>
<thead>
<tr>
<th>投資規模 (千鉄)</th>
<th>日本</th>
<th>美國</th>
<th>欧洲</th>
<th>其他</th>
<th>計</th>
</tr>
</thead>
<tbody>
<tr>
<td>50 이하</td>
<td>135</td>
<td>12</td>
<td>4</td>
<td>3</td>
<td>154</td>
</tr>
<tr>
<td>51～100</td>
<td>128</td>
<td>20</td>
<td>2</td>
<td>4</td>
<td>154</td>
</tr>
<tr>
<td>101～500</td>
<td>219</td>
<td>47</td>
<td>12</td>
<td>9</td>
<td>287</td>
</tr>
<tr>
<td>501～1,000</td>
<td>32</td>
<td>10</td>
<td>3</td>
<td>4</td>
<td>49</td>
</tr>
<tr>
<td>1,001～5,000</td>
<td>13</td>
<td>11</td>
<td>15</td>
<td>81</td>
<td></td>
</tr>
<tr>
<td>5,001 以上</td>
<td>7</td>
<td>5</td>
<td>3</td>
<td>17</td>
<td></td>
</tr>
<tr>
<td>平均</td>
<td>563</td>
<td>107</td>
<td>35</td>
<td>37</td>
<td>742</td>
</tr>
</tbody>
</table>

表 17 ountry별 投資規模別 平均投資比率

<table>
<thead>
<tr>
<th>投資規模 (千鉄)</th>
<th>日本</th>
<th>美國</th>
<th>欧洲</th>
<th>其他</th>
<th>平均</th>
</tr>
</thead>
<tbody>
<tr>
<td>50 이하</td>
<td>47.5</td>
<td>54.3</td>
<td>41.3</td>
<td>41.0</td>
<td>47.7</td>
</tr>
<tr>
<td>51～100</td>
<td>50.3</td>
<td>66.3</td>
<td>55.5</td>
<td>84.8</td>
<td>53.3</td>
</tr>
<tr>
<td>101～500</td>
<td>52.4</td>
<td>56.6</td>
<td>53.2</td>
<td>48.4</td>
<td>53.0</td>
</tr>
<tr>
<td>501～1,000</td>
<td>56.8</td>
<td>56.2</td>
<td>53.9</td>
<td>22.5</td>
<td>53.6</td>
</tr>
<tr>
<td>1,001～5,000</td>
<td>57.6</td>
<td>54.2</td>
<td>54.8</td>
<td>38.5</td>
<td>53.1</td>
</tr>
<tr>
<td>5,001 以上</td>
<td>70.3</td>
<td>48.0</td>
<td>64.7</td>
<td>37.5</td>
<td>58.9</td>
</tr>
<tr>
<td>平均</td>
<td>51.6</td>
<td>57.4</td>
<td>53.5</td>
<td>44.3</td>
<td>52.2</td>
</tr>
</tbody>
</table>

21) 표 4의 투자비율을 이용한다면 더 많은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제안문에서 이와 같은 [비스트]를 적용하지 않았다.
여는 현대적에는 명확한 업체이 어려움 실정이나 33).

주요 기업의 규모와 투자비율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주요 기업의 규모가 크면 투자 비율이 높아진다고 generally do not participate. 

이에 따라 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애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 기업의 규모별 주요 기업의 규모를 살펴보는 것은 외부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포춘」誌의 1970년 '포춘' 정의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과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평균 투자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주요 기업이 대기업인 경우가 오히려 투자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유럽 및 기타 지역의 경우는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수치적으로는 유리한 대기업의 투자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 외국 기업의 투자 비율을 비교하여 보았다.

〈표 18〉 주요 기업의 규모와 평균 투자비율 34)

<table>
<thead>
<tr>
<th>기업 분류</th>
<th>일본</th>
<th>미국</th>
<th>유럽</th>
<th>기타</th>
<th>총계</th>
</tr>
</thead>
<tbody>
<tr>
<td>대기업</td>
<td>(50)</td>
<td>(55)</td>
<td>(60)</td>
<td>(47)</td>
<td>(52)</td>
</tr>
<tr>
<td>기타 기업</td>
<td>(51)</td>
<td>(58)</td>
<td>(49)</td>
<td>(46)</td>
<td>(52)</td>
</tr>
<tr>
<td>총계</td>
<td>(51)</td>
<td>(57)</td>
<td>(53)</td>
<td>(44)</td>
<td>(52)</td>
</tr>
</tbody>
</table>

1) '포춘'의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과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평균 투자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주요 기업이 대기업인 경우가 오히려 투자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유럽 및 기타 지역의 경우는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수치적으로는 유리한 대기업의 투자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 외국 기업의 투자 비율을 비교하여 보았다.

2) 주요 기업의 규모별 투자비율을 살펴보면 투자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기업이 낮은 투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3. 결론 및 정책의 의미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기업의 투자 비율에 대해 고심하여, 일반적인 추세, 주요 기업의 규모별 투자 비율 등을 살펴보았다. 외국인 기업의 규모별 투자 비율은 분포를 통한 국외 정부의 최소 투자 비율에 기초하여, 우리 정부의 투자 비율은 외국 기업의 투자 비율에 기초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에 기초하여 외국 기업의 투자 비율이 낮은 경우를 보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투자 비율에 관한 정책의 작용에 기초하여 외국 기업의 투자 비율이 낮은 경우를 보이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의 제한 수치가 그동안 심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을 또한 우리나라의 외국 기업을 그 동안 악 데 대한, 홍콩, 필리핀과.
다도 적었던다는 이유를 일부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외국인投資決定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외국인投資比率에 관한政策보다는 국내市場規模, 자원賦存状況, 一般 혹은部門別⋅經濟政策 등으로 판단되나 비슷한環境에 처해 있는 국家人들이 여럿 존재할 때에는投資比率에 관한政策 또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投資比率에 대한統制이 별로 없었다면實際로 어느 분야에 더 많은 投資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異國⋅產業別 投資베트의 比較 등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投資比率制限은 우리나라의 경우 분명 외국人投資抑制의 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人投資比率의 制限은 보통 외국人投資로 인하여發生하는 附加價值를 최대한国内에 殘留시키고 외국人投資企業의 營業活動이 経済開発計劃目標와 合致하도록 国內參與企業의 経営支配権을 최대한 증가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외국人投資企業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 前述한 대로 株式의 所有가 아닌 다른 형식(技術導入契約, 原資材 혹은 部品導入契約, 委託經營契約, 拒否權條項)를 통하여投資企業에 實質의 支配権을行使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内國人投資比率의 增가가 곧 内國人支配權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投資比率의 制限은 반면 自國에 필요한 投資를 全般的으로 감소시키거나 產業別 投資ベ트를 収縮시킬 수 있다. 이는投資比率制限自體가 하나의政策目標가 될 경우 외國人投資政策一般 혹은 経済開発政策全般의目標와 相馳되는結果을惹起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投資比率의 制限은 외國人投資政策나 외국人投資政策나는 経済開発政策의目標와 相馳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만 経済의 效率을喪失되지 않고 소위 "國家經濟의 自立度"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産業的 性格別으로 投資比率推移を 살펴보면 우리나라의輸出増大라는目標가 技術移轉이라는目標보다 향상 우선하여 輸出을 위한外國人投資事業운 投資比率에 거의 制限을 받지 않고 許可된 감이 있고 技術集約의事業은 大部分 内需産業的 性格を-SA고 있었기 때문에投資比率에 많은 制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無理 一部技術集約의外國人投資事業は投資比率의 制限 때문에國內에導入되지 않았다만 이는技術移轉を通한 国内産業構造合理化라는 보다 큰目標에 相馳서는 결로로서的 시일내에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外國人投資比率條件로는 稳定하더라도內國人雇傭 혹은訓練條件を 강화함으로써 技術移轉效果를增大시킬 수도 있고 国内原資材使用條件을 一部 추가시킴으로써国内에 殘留する附加價值를 높일 수도 있다. 또한 内需의獨占이憂慮되는産業일 경우에는 外國人投資

24) Billerbock and Yasui(1979)는 일부 개발도상국의 무자비움에 대한 정중한 제안이 외국인 무자비움 자제의 감소는 가가화할까 도모하려 내국인 기업시장의 증가는 가지로도 향상하고 있다.
誘致을 위한 각종 혜택을 제한하거나, 외국인
투자 혹은 수입을 자유화시킴으로써 국내시장
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의 제한은 그 자체
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안되고 외국인투자정책
혹은 경제개발정책의 목적이 상호를 둘러싼 방향에
서 상호적으로 올바르게 운용되어야 외국인투자의 경제
발전에의 위협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金贊鎬,『外資導入論』, 一潮閣, 1976.
大韓商工議會,『韓國人投資の手引き』, 1974.
日本通産省,『我が国企業の海外事業活動』, 1979.
Billerbock, K., and Y. Yasugi, “Private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Staff Working
Caves, R.E., “International Corporations: The
Industrial Economics of Foreign Investment,”
Curhan, J.P., W.H. Davidson, and R. Suri,
Tracing the Multinationals, Cambridge,
1977.
Economic Planning Board, Guide to Investment
in Korea, 1976.
Feldman, G.M., “Coping with New Challenges
to Investment Ventures Abroad,”
Commerce America, July 3 and 17, 1978.
Franko, L.G., Joint Venture Survival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Praeger
(▲▲▲), “Multinationals: the End of U.S.
Dominance,” Harvard Business Review,
Friedmann, W.G., and J.P. Beguin, Joint
International Business Ventures in Devel-
oping Countries, Columbia University
Friedmann, W.G., and G. Kalmanoff, Joint
International Business Ventures, Colum-
Kojima, K., “A Macroeconomic Approach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Hitotsubashi
in Korea: A Comparative Study,”
1980a.
(▲▲▲), “On Japanese Macroeconomic The-
oorie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mimeo-
graphed, 1980b.
Oman, Charles, “Changing International In-
vestment Strategies: The 'New Forms’
of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Conference Document Number R (80) 13
OECD, 1980.
Wright, R.W., and C.S. Russel, “Joint Ven-
tures in Developing Countries: Realities
and Responses,”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Summer 1975.